

순천시, 출근이 즐거워지는 워라벨 직장분위기 조성

다양한 직원 맞춤형 후생복지 제도 마련

최근 취업준비생들이 좋은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 1위가 연봉이 아닌 복지라고 한다. 그만큼 일과 삶의 조화를 꿈꾸는 워라벨(일과 삶의 균형)을 중요시하고 실천할 수 있는 직장을 찾고 있는 것이다.

순천시는 이러한 시대적 트렌드 변화의 움직임에 따라 공직사회에도 개인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고 조직의 생산성을 높이는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한 다양한 직원 맞춤형 후생복지 제도를 마련하는 등 선도적으로 사회변화 기조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 맞춤형복지 지원과 개인의 창의적 자기계발을 도모하다

순천시는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로 개인의 안전보장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단체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자기계발, 여가활용, 가정친화 등을 위해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개인별로 지급을 하고 있다.

또한, 정시 퇴근 후 직원들이 다양한 취미·여가활동을 통해 개인의 행복과 삶의 만족도 향상 및 직권간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하여 '직장 동호회 및 소통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직원들의 여가 및 건강증진을 위해 소통프로그램 강사비를 매월 지원하고 동호회 친선대회, 외부 출전경비를 지원하여 삶의 활력과 재미를 찾고 신체적·심리적 에너지를 부여함으로써 직원들 사이에서 만족도가 높아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이런 복지제도는 직원들에게 퇴근 후 저녁이 있는 삶을 갖게 함으로써 자기계발과 여가활동 등에 대한 소비촉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준다.

▶ 아이 낳고 양육하기 좋은 행복한 일터를 만든다

순천시는 직원들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직장을 만들기 위하여 순천시

노인회관 내 '순천시청 직장어린이집'을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어르신과 영유아가 함께 세대공감하며 소통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또한, 출산장려 및 육아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지자체 최초로 12개월 이하 자녀를 둔 직원을 위해 '출산장려휴가'를 조례로 제정하여 실시하고 있다. 시는 이외에도 출산축하기념품을 지급하고 있으며, 컷짜아, 돌짜아, 셋째아를 출산한 직원에게는 차별화된 복지혜택을 부여하여 순천시만의 저출산 극복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 나만의 특별한 날을 기억하는 힐링데이 '기념일 휴가'

자신을 소중히 여기면 다른 사람들



도 나를 소중히 여기고 좋은 친구가 되듯 순천시는 나를 기념할 수 있는 생일·결혼기념일 등에 연1회 1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기념일 휴가조례를 만들 계획이다.

이 날은 오롯이 자신만을 위해 지내온 날을 되돌아보며 재충전의 시간을 가져보는 날이 될 것이다. 허석 순천시장은 "순천시의 중심

이 되는 2,500여명의 공직자가 행복해야, 순천시가 행복하다고 직원들에게 강조한다."면서 "순천시 공직사회에 서로간 존중하고 함께 배려할 수 있는 유연한 문화를 정착시키고 안식처 같은 직장의 조직문화 개선을 통해 더 편안하고 행복한 도시 순천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보성군, 오봉산 해평호수에 사계절 꽃 피는 경관 숲길 조성

산수유 애기동백 등 13종 3만5천본 식재

보성군은 특랑면 오봉산 일원 해평호수변에 사계절 꽃이 피는 경관 숲과 둘레길(3.35km)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오봉산 해평호수는 오봉산 바로 아래 있어 오염원이 없고, 울해 호수 주변으로 1km 길이의 데크길과 황토길 이 완성 돼 잔잔한 호수를 보며 산책을 즐기기에 좋다.

보성군은 지난 달 22일부터 산림본

야 근로자 60여 명을 투입해 데크길 주변(35,000㎡) 산림에 대해 대대적인 숲 가꾸기를 시작했다.

사계절 꽃이 피는 숲 조성을 위하여 겨울에도 꽃이 피는 남매를 비롯하여 생강나무, 히어리, 산수유, 함박꽃나무, 단풍나무, 동백나무 등 11 종의 수목과 마삭줄 등 덩굴류 2종 등 총 13종 3만5천 본을 식재할 계획이다.

특히, 신규로 확대 개설 예정인 흙

길(1km) 주변으로는 눈과 머리를 시원하게 하고 가슴속에 열을 내려줘 폐렴, 기관지염, 두통, 어깨 결림, 고혈압 등에 효과가 있는 감국을 집단 식재하여 걷기만 해도 건강이 좋아지는 힐링 산책로를 선보일 예정이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연일 작업 현장을 찾아 전국 최대 구들장 체석장인 오봉산과 해평호수 등의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직접 현장 지휘를 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다.

보성=김덕순 기자

광양 장동마을, 농어촌형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선정

2024년까지 24억 원 투입 쾌적한 생활 인프라 구축

광양시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실시한 2021년 농어촌형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에 옥곡면 장동마을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기초생활 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비율이 높고, 30년 이상 노후주택 또는 슬레

이트 지붕 설치 비율이 높아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생활·위생·안전 등 인프라를 확충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장동마을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2024년까지 2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마을회관 리모델링, 주택

(지붕) 정비, 안전난간·옹벽 설치, 담장·마을간길·배수로 정비, 다목적 마당·포켓쉼터 조성 등 인프라 확충사업과 노인 돌봄,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휴먼케어(human care)와 지역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한다.

동부취재본부 김택영 기자

고흥군, 거금도 햇양파 프리미엄 시장 진출

롯데백화점에 첫 공급 시작...양파 고급 시장 신규 판로 개척



고흥군은 지난 8일 금산 신흥마을 광장에서 고흥 햇양파 프리미엄 시장

출하 기념행사를 갖고 고흥군 대표 농산물인 '고흥 양파'의 본격적인 출하

를 알렸다.

이번에 출하한 햇양파는 지난 3월 9일 롯데백화점 본점(서울 중구 소공동)에서 홍보행사를 갖고 전국 롯데백화점 20개 매장에서 판매될 예정이며, 본격적인 수확과 출하가 이뤄지는 3월 중순 이후부터는 홈플러스, GS리테일 등 다른 대형 유통사에도 본격 납품될 예정이다.

남양안 거금도 양파연구회장은 "어려운 시기에 고흥 양파를 백화점에 선보일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백화점을 찾는 고객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더 좋은 고품질의 고흥 양파 생산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동부취재본부 김택영 기자

여수시, 원예작물분야 스마트팜 등 신기술보급 추진 '박차'

'스마트팜' '아열대과수 단지 조성 시범' 등 3억 9천만 원 투입



여수시는 올해 원예농업인을 대상으로 채소, 과수, 스마트팜 등 원예작물분야 신기술보급 사업에 3억 9천여 만 원을 투입한다고 1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원예분야 신기술보급

사업에 국·도비 3개 사업과 시 자체 7개 사업을 추진해, 새롭게 연구·개발된 기술과 기자재를 영농현장 확대 보급할 계획이다.

특히 기후변화와 소비트렌드 변화에 대응한 유망 신소득 작목을 발굴하고, 첨단기술 융복합을 통해 편리성과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등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한 농가경쟁력 향상 신기술보급 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세부 사업으로 '지역 맞춤형 스마트

팜 기술보급 시범' 등 스마트팜 설치 2개 사업에 1억 3,000만 원, 우리지역 적응형 '아열대과수 단지 조성 시범', '소비자 선호형 소과류 안정생산 시범' 2개 사업에 7,200만 원을 투입한다.

또한 도시근교 소득작목 경쟁력 향상 기술보급을 위한 '시설원에 병해충 방제 생력화 시범' 등 6종 11개소에 1억 8,400만 원을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농업환경 변화에 맞춘 원예작물 신기술보급 시범사업 추진과 적극적인 현장지도로 신기술을 잘 정착시켜, 농가소득 향상과 농업·농촌 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책과 함께 즐거로운 거리두기

코로나19로 우리의 일상이 잠시 멈췄습니다.
'책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으로
코로나19 극복에 동참해 주세요.





